

“nNever Dream”과 “The Great Escape”에 담긴 희망을 말하다. The Hope of “nNever Dream” and “The Great Escape”

박수진, 박민, 한지애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

Park Su-Jin, Park Min, Han Ji-Ae
School of Infomatics & Product Design, Chosun
University

1. 작품 “nEver Dream”(左), “The Great Escape”(右) 이미지



2. 컨셉전 “시간”(詩間: 나를 표현한 감정의 공간) 속 ‘희망’ 테마의 두 작품을 들여다 보다.

매트 페인팅 기법(matte painting) 특정 공간을 묘사하거나 구성하는 고도로 사실적인 그림이나 시각효과를 이용하여 진행된 전시 “시간(詩間) : 나를 표현하는 감정의 공간”은 9명의 디자이너의 마음 속 풍경을 표현한 컨셉전이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이 전시를 통해 동심, 희망, 설렘, 무감각 총 4가지의 감정을 아트웍으로 표현해냈다. (2018) ‘동심’의 주제에서는 떠나보낸 어린날의 감정들을, ‘희망’의 주제에서는 청춘에게 주고 싶은 세상을, ‘설렘’의 주제에서는 여행이 안겨주는 기대를, ‘무감각’의 주제에서는 기계에 의해 사라진 감정이 표현되었다. 이 중 n포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청년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희망을 담은 두 작품 “nEVER DREAM”(左)과 “The Great Escape”(右)은 n포 세대를 압박하는 사회적 요구와 좌절하게 만드는 물질만능주의를 각각 여성과 남성의 시각으로 투영하여 메타포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nEVER DREAM”에서 n은 n포 세대를 뜻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로 n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대를 풍자한 신조어이다. 본 작품은 이러한 n포 세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그녀에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들이 펼쳐지는 희망적인 공간을 상징적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상징적 요소들을 ‘n포 세대’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밝고 활기차게 표현하였다. 먼저 뒤에서 빛나고 있는 성과 보석이 박혀 있는 산은 여성의 관점에서 화려하게만 보이는 결혼을 뜻하며, 명품 패턴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명품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이라 생각하여 부유함으로 건물을 표현하였고, 공간 안에서 뛰어다니는 듯 자유로운 실루엣과 비밀스러운 실루엣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있는 모습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자신의 외모를 의미하며, 하늘에 별뿔뿔 같이 떨어지는 네온 불빛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밝게 빛나고 있는 아기의 뺨줄을 긍정적인 요소로 표현하였고, 사과나무와 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여자는 아름다운 사랑과 아이를 위한 출산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작품명 'The Great Escape'(右)는 존 스타지스 감독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들의 탈주 과정을 담은 영화 1963년작 '대탈주'에서 차용하여, 세상의 욕심이 집어삼킨 성에는 청년이 원했던 것들이 가득했지만 모두 형편없는 모습으로 쓸모없게 되어있고, 성에는 균열이 가득하고 자동차는 고물이 되었으며, 학사모는 뒤집혔고 돈은 낙엽처럼 흩날릴 뿐인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명품시계와 양복은 녹슨 시계탑과 깨진 쇼케이스에 걸려있고, 성의 상층부에 웅장한 성과 대비되는 컨테이너박스가 안전지역 표지판을 단 채 설치되어있다. 그것은 한낱 컨테이너였지만 밝은 빛을 뿜고 있었고 이를 본 청년은 저 곳에는 파란 희망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진 채, 망설이지 않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비상구의 앞에 선다. 이를 도와주듯 달빛이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이 작품 속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물질만능주의를 기반에 둔 외적 이룸다움의 상징들을 모두 형편없는 모습으로 깨트림으로써 현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행복의 본질은 n포세대를 만드는 요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 본 연구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